

신생아에게 흔한 질환 ②



매일유업 영양과학연구소

◆아토피성피부염

아토피성피부염은 겨울철 피부건조와 여름철 땀, 세균감염 등과 함께 식품 중 우유, 초콜릿, 돼지고기 등으로 인한 알레르기가 원인이 되어 발생합니다. 증상으로는 빨갛게 부어오르고 거칠어지며, 가렵고 팔꿈치나 무릎 등 접히는 부위에는 피부발진으로 진물이 나기도 합니다.

아토피성 피부염과 같이 소화기계가 아닌 부위에서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면 특수분유를 수유해서 증상을 완화시키고 점차적으로 사라지게 합니다.

◆변비

변의 횡수가 뜸하고, 변 보기를 힘들어 하고, 딱딱하고 멍울이 섞인 변을 본다면 대체로 변비입니다. 아기에게 변비가 생기는 원인에는 영양부족, 구토, 선천성 거대결장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원인 없이 변비가 잦다면 과즙이나 보

리차 등으로 수분을 충분히 공급하면서 의사의 지시를 받아 관장도 시켜봅니다. 아기가 대변을 보려 할 때 엉덩이를 따뜻한 물에 잠시 담가주는 것도 좋습니다.

변비일 때는 유산균이 다량 함유된 발효식품을 하루 1-2회 규칙적으로 주고 섬유소가 들어있는 야채나 과일 간 것, 이유식(곡분, 미역 등)을 줍니다.

◆녹변

아기의 변이 황색에서 녹색으로 변했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녹변은 새로운 음식을 먹었거나 또는 감기 등으로 몸이 허약해졌을 때 나타납니다. 따라서 녹변 그 자체는 병이 아니고 하나의 증상일 뿐입니다.

녹변을 계속 보더라도 상태가 좋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알갱이가 섞이고 물기가 많은 녹변은 감기로 인한 경우일 수 있으므로 감기 치료만 해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PPFK**

서울지회 세포검진 (자궁암등) 전문기관 인증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서울지회(지회장 배효원)는 2001년 7월 대한병리학회로부터 자궁암등 세포검진 판독 전문의료기관으로 인증받았다. 이번 검진전문기관 인증은 서울지회 중앙병리검사소의 판독결과에 대하여 대한병리학회와 대한세포병리학회에서 인증기준 120여개의 해당사항에 대한 정밀 심사를 한후 적합판정되어 인증서를 발급한 것이다.

가협은 국가암관리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자궁암 검진등 전국 시·도의 협조를 받아 국민건강증진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지회 중앙병리검사소는 90년대초부터 자궁세포질검사 등을 연 130만 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주수자 소장(해부병리전문)은 국민들의 식생활 변화에 따라 성인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특히 여성들은 정기적으로 자궁암 등의 검사를 받아 사전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